금수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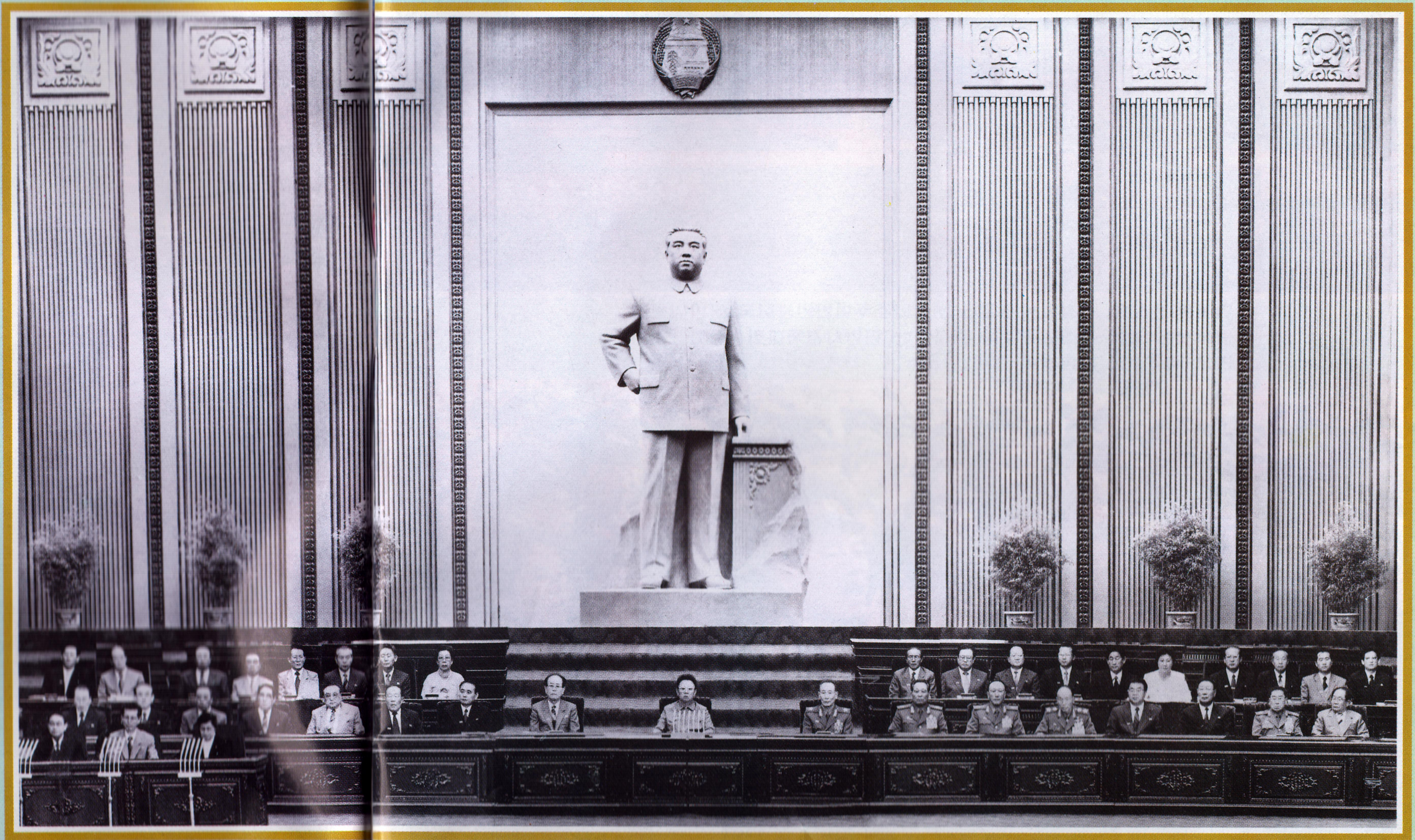
10
주체87 (1998)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된 세계사적인 대사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주석단



최고인민회의 참가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우)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장병들의 대회(아래)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춤판을 벌려놓았다. (사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인민들)



금수강산

월 간

주체87(1998)년 10호(루계 제110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은 하늘에 닿았다.

사진 : 김광진

뒤표지 :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88317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

주체혁명위업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는 장엄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수십성상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태양의 나라로 빛내여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는 력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쳐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하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여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필승불패로 다지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정치와 백전백승의 지략으로 **김일성**조선의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하여 21세기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시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을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성으로 한다.
2.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으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87(1998)년 9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을 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 원 장 김 정 일

제1부위원장	조 명 록	위원	김 영 춘	위원	백 학 림
부위원장	김 일 철	위원	연 형 묵	위원	전 병 호
부위원장	리 용 무	위원	리 을 설	위원	김 철 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부위원장	양 형 섭	서기장	김 윤 혁	위 원	승 상 섭
부위원장	김 영 대	위 원	류 미 영	위 원	천 연 옥
명예부위원장	리 종 옥	위 원	강 영 섭	위 원	렴 순 길
명예부위원장	박 성 철	위 원	리 길 송	위 원	박 태 화
명예부위원장	김 영 주	위 원	리 철 봉	위 원	리 광 호
명예부위원장	전 문 섭	위 원	리 일 환	위 원	태 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성원들을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홍성남

부총리	조창덕	농업상	리하섭	체신상	리금범
부총리	곽범기	화학공업상	박봉주	문화상	최재현
외무상	백남순	경공업상	리연수	재정상	림경숙
사회안전상	백학림	무역상	강정모	로동상	리원일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림업상	리상무	보건상	김수학
전기석탄공업상	신태록	수산상	리성웅	체육상	박명철
채취공업상	길성남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최종건	국가검열상	김의순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국가건설감독상	배달준	과학원장	리광호
건설건재공업상	조윤희	상업상	리용선	중앙은행 총재	정성택
철도상	김용삼	수매량정상	백창룡	중앙통계국장	김창수
륙해운상	김영일	교육상	최기룡	사무국장	정문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고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김병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백학림				
위원	최영림	위원	최원익	위원	박선호
위원	김병률	위원	박관오	위원	최수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한성룡				
위원	리태연	위원	현려진	위원	조혜숙
위원	홍서헌	위원	홍영길	위원	리주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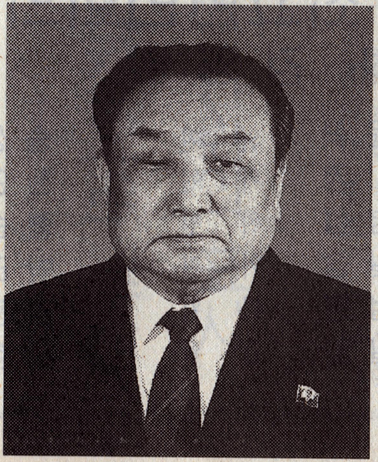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부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내각 총리 홍성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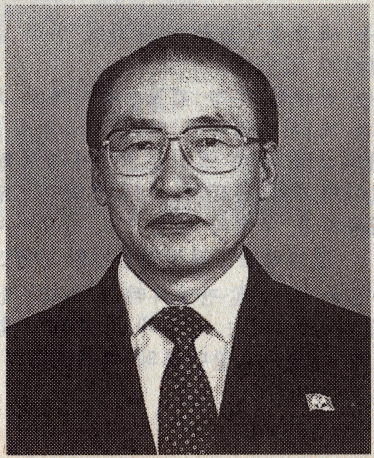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전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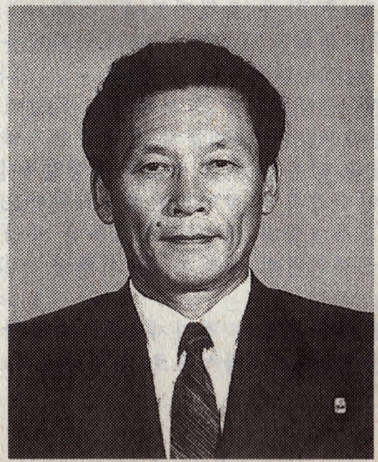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리종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지난 9월 5일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당, 정권기관, 무력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이어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정당, 사회단체, 과학연구부문 책임일군들과 함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묵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의 만년밑천을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양형섭대의원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거되고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의안이 결정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양형섭대의원의 보고가 있은 다음 수정보충한 헌법초안이 랑독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가 토의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김영남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의를 본 회의에 정중히 제기하였다.

그 제의를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이 폭풍같은 환호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것이 엄숙히 선언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명예부위원장들과 서기장이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위원들이 또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 홍성남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성원들을 발표하였으며 그들은 전원찬성으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이 임명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이 선거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문별위원회들인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가 선거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은 다음 그를 승인하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 대한 록음청취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총리 홍성남대의원의 선서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한 결의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실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충성의 대회, 통일단결의 대회였다.

조선의 영광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최대의 영광이고 최상의 행복입니다.

백두산의 아들이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계속 맡으시고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는 국방사업을 이끄시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오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절감한 우리 항일의 로투사들뿐만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입니다.

준엄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시였고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주체의 령군술을 익히신 그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을 이끌어오신 력사가 있고 경험과 업적이 풍부하신 로숙하고 세련된 군령도자이십니다.

장군님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사상과 령도로 이기시고 신념과 사랑으로 이기신 승리의 강자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시여 조국청사와 인류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창조와 위훈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돌이켜보면 10대의 시절에 백두산의 호랑이 **김일성**장군님의 전령병이 되였던 내가 80고령이 된 오늘도 조선인민군 차수의 높은 군사칭호를 지니고 젊음에 넘쳐 생활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덕분입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항일투사들을 금싸래기와도 같이 귀중히 여기시며 혁명의 1세대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이 세상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산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 앞에 서있던 자세 그대로 차수이기전에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전령병으로 한생을 충직하게 살며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장군님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높이 받들어모시겠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조선인민군 차수
사회안전상 백 학 림

더 많은 전기기관차를 생산하겠다



기쁨이면 이보다 더 큰 기쁨, 감격이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소식은 저와 우리 전기기관차 생산자들의 뜨거운 심장을 터칠듯한 환희에 잠겨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곤난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오늘의 준엄한 때에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기에 두려움과 동요를 모르고 앞으로 달려올수 있었으며 이런 경사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엄혹한 시련도 이겨내고 주체의 사회주의도 훌륭하게 건설합니다.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니 오늘과 같이 곤난한 때에도 인공지구위성을 쾅쾅 쏴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배짱이 생기고 신심이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 전기기관차생산자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 맨주먹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투쟁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끝끝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불타는 일념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영광과 긍지를 안고 전기기관차생산에 필요한 가공품들을 제때에 보장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가공2직장 직장장 리 용 남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김정일**동지께서 국가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조선의 대경사이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자랑이고 영광이다.

조선인민이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그이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21세기를 위대한 시대로 빛내여나가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자주성을 지향하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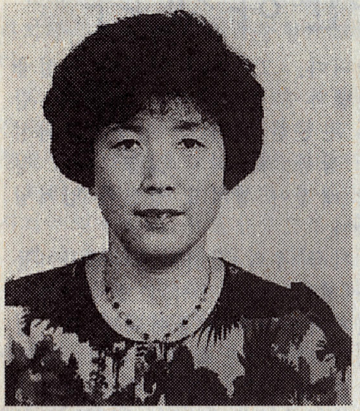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나라의 통일을 위한 모든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비슈와나스

민족의 경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저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변함없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민족의 대경사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재중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천하제일의 명장이신 장군님을 운명의 수호자, 자애로운 어버이로 받들어모신 최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뜨겁게 소용돌이치고있습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에게 참다운 인생의 해빛을 비쳐주시고 자애로운 어버이품에 안아주시여 오늘은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긍지높은 장군님의 전사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저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심장과 배짱을 안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을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고귀자

애국애족의 한길에 헌신하겠습니다

조국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해외공민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습니다.

이것은 조국인민들만이 아닌 우리 해외동포들, 전체 조선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며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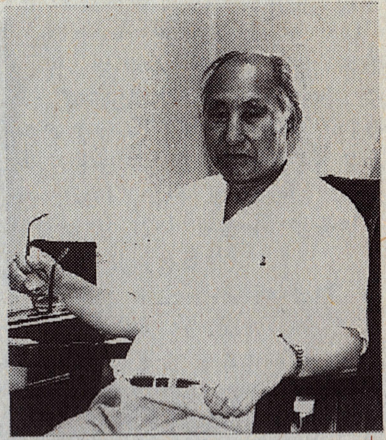
장군님은 해외에서 사는 우리 공민들의 친어버이이십니다. 해마다 좋은 계절이 오면 조국에 와서 휴양도 하고 등산도 하며 즐기다 가라고 불러주시고 여러가지 애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따뜻이 돌봐주시는분이 장군님이십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별로 한일없는 저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저는 행복감에 젖어 뜨거움만 삼킬뿐이였습니다.

우리 해외공민들이 친어버이로 모시고 하늘처럼 믿고 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여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신다니 저는 조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가 창창히 내다보입니다. 조국의 통일도 눈앞에 있는듯합니다.

오늘의 이 경사스러운 날에 저의 가슴속에서 더욱 굳어지는 철석의 맹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충효일심으로 믿고 따르며 조국의 통일과 애국애족을 위한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일념뿐입니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
채 종 만

조국과 인민의 창창한 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소식에 접하여 우리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젖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드팀없는 신조로 내세우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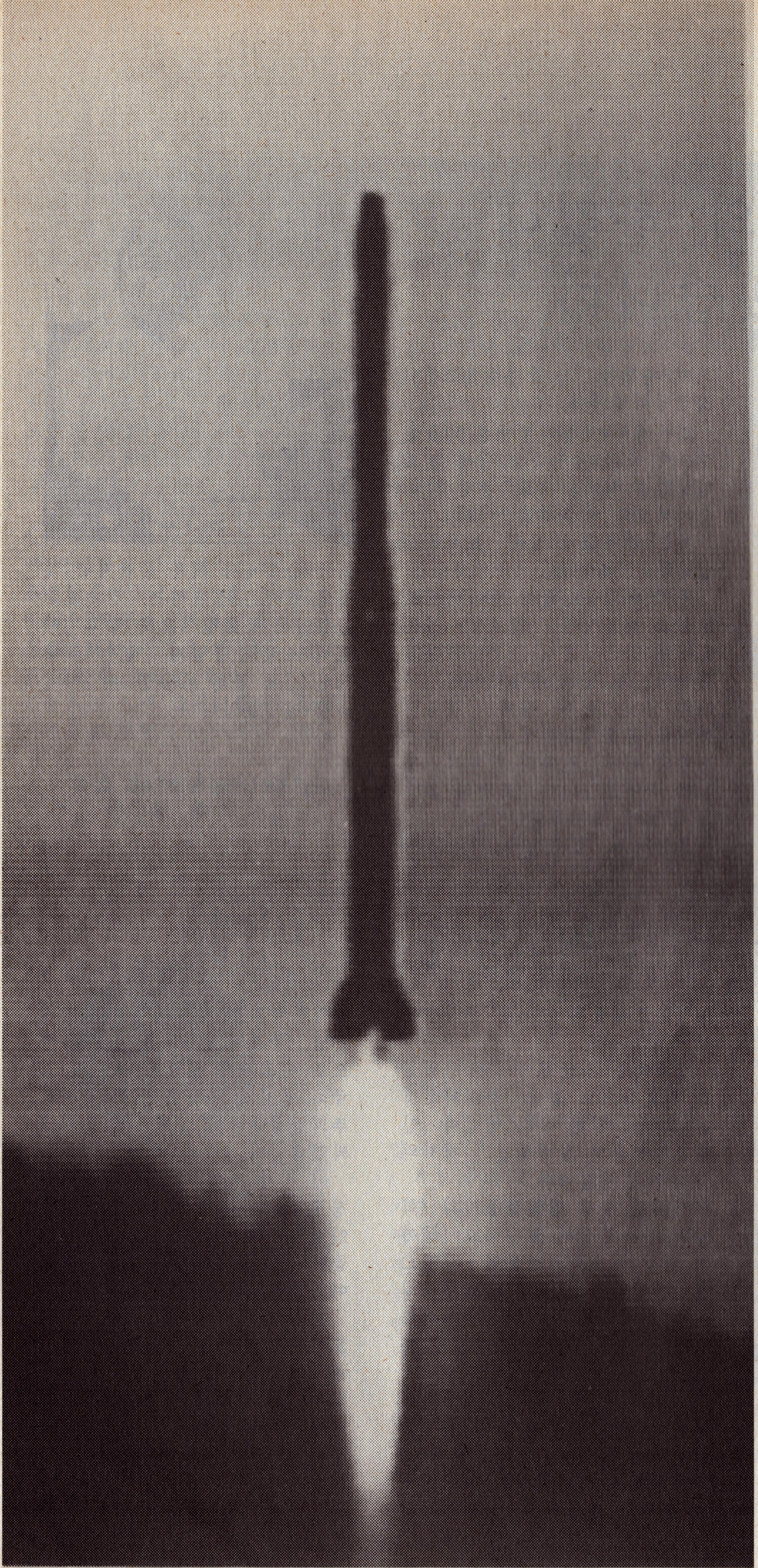
그이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심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최고리익이 결정적으로 수호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창창한 미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굳게 약속되게 되였습니다.

이 시각 저의 가슴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나갈 불타는 의지로 충만되여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현실성있게 지도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겠다는것을 결의합니다.

농업성 한 덕

《광명성1호》는 지구를 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였다.

우리는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소식을 해외동포들에게 더 자세히 전하기 위해 해당 과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일성훈장》수상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원사, 교수, 박사 권동화 :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공지구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가 1980년대에 개발되였으며 인공지구위성연구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 때가 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초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수 있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였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해주신대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공화국창건 50돐을 앞두고 의의있게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소문없이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해온 이 분야의 과학기술과 공업의 위력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한해철 :

《광명성1호》발사의 목적은 첫째로, 다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하여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 기술을 실현시키며 둘째로, 다계단운반로케트의 구조공학적설계와 조종기술을 완비하며 셋째로, 우주공간환경을 연구하고 우주공간환경속에서 전자장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가를 검증하며 넷째로,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체계를 완성하는데 있었다.

이번에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주환경에서 필요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토대를 쌓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위성관측체계와 위성통신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였다.

과학자 김행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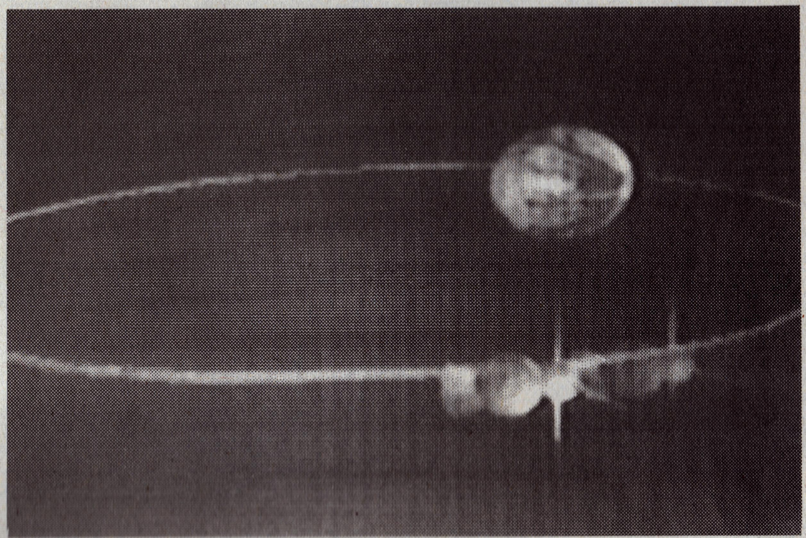
이번 위성발사의 비행자리길은 일본 혹가이도와 혼슈사이의 쯔가루해협방향의 상공으로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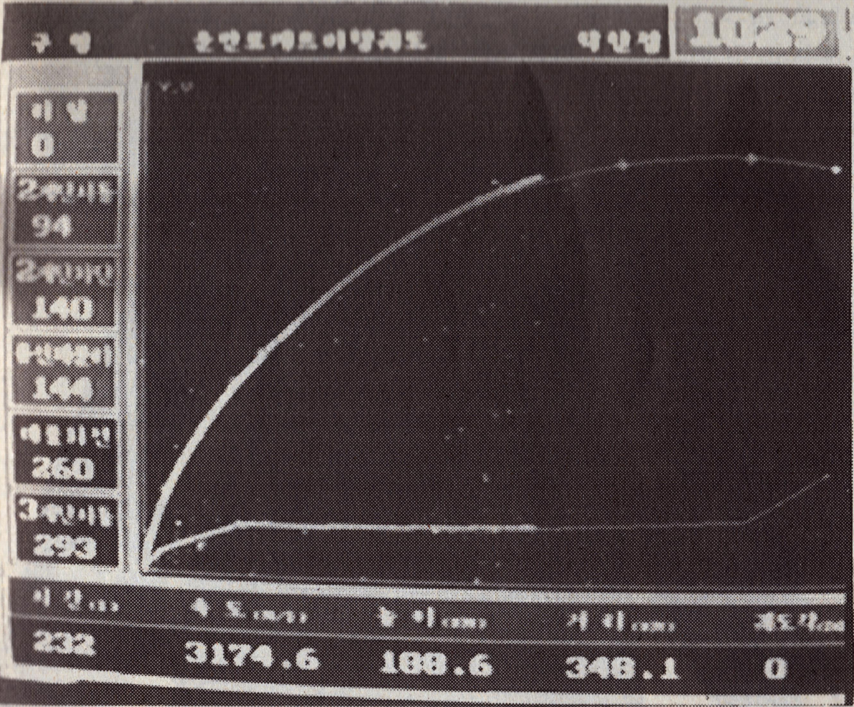
그리고 위성운반로케트에는 로케트가 비행도중 예정된 자리길에서 탈선되는 경우 안전지대에로 유도하여 자체폭파할수 있는 장치가 되여있었다.

위성발사자들은 8월 7일 화대군 무수단발사장에 도착하여 한주일동안 기재전개를 끝낸 다음 부분련동시험과 종합련동시험에 들어갔다. 이에 토대하여 지난 8월 31일 12시 07분에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 53초이다.

이번 성공을 놓고볼 때 우선 운반로케트의 신뢰성에 대하여 크나큰 자부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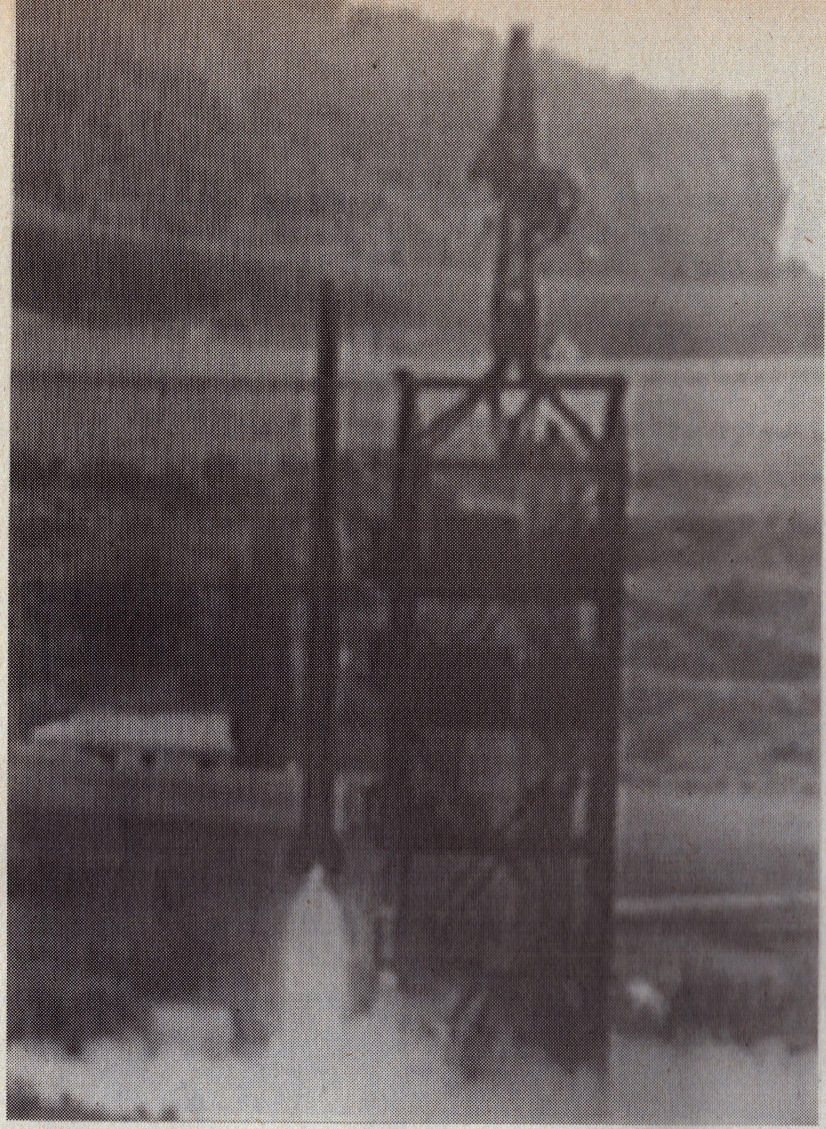


첫 인공지구위성 궤도와 그라프

다계단운반로케트성능은 대단히 완벽하다.

세계여론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운반로케트가 개발되였다는것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고있는것과 같다고 흔히 평가한다. 그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진 운반로케트를 개발보유하는것은 인공지구위성발사의 관건의 관건을 이루게 된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지구위성의 개발을 위한 운반로케트분야의 기술과 공학에서 세계적수준에 있다고 자부하고있다.

운반로케트의 1계단과 2계단은 성능이 좋은 액체로케트발동기로 되여있으며 3계단은 고성능고체



연료를 가진 구형발동기로 되여있다. 로케트의 조종장치에는 콤퓨터를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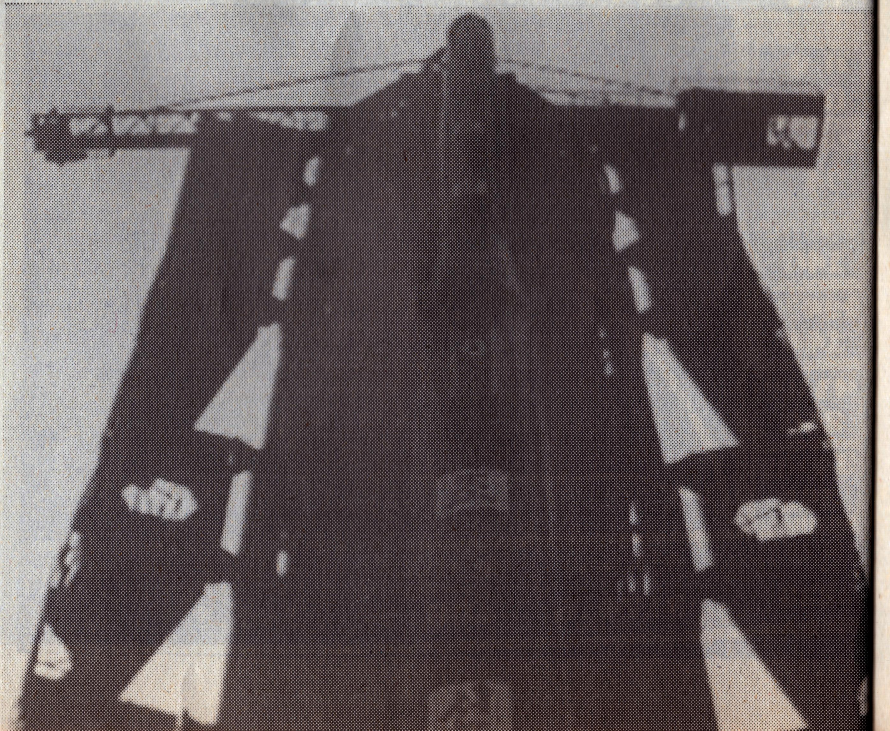
권동화:

운반로케트는 발사된후 리론적으로 예견했던 비행자리길을 따라 정확히 비행하였으며 궤도에 진입한후 위성의 모든 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위성의 장치들과 요소, 재료들이 매우 우수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으며 인차 실용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과학적담보가 마련되고 통신위성의 개발과 리용도 가능하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쏴올린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전자장치와 기계장치의 부분품으로부터 조종기술에 이르기까지 열, 백가지가 다 우리의 것이며 100프로 우리의 힘과 지혜,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이것은 막강한 경제토대와 높은 과학기술을 가진 우리 나라 국력의 과시로 된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위성발사장에서는 지난 8월 31일 12시 07분에 우리 나라 첫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운반로케트의 동체에는 공화국기와 《조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운반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운반로케트는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되여 4분 53초만인 12시 11분 53초에 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운반로케트는 3계단으로 되여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2도 40분의 조선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646㎞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위성은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 82㎞, 제일 먼 거리 6,978.2㎞의 타원궤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주기는 165분 6초이다.

위성에는 필요한 탐측기재들이 설치되여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계산토대를 확정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7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단 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주체87(1998)년 9월 4일 평양

과학기술발전의 리정표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단번에 성공!

이것은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하나의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다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한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전자공학, 우주공학, 전자재료 및 금속재료공학과 전기공학, 초정밀기계공학 등 우주응용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다.

다계단운반로케트도 인공지구위성도 100%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여 단 한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주체적인 우리의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기술이 세계최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그 조종과 통신에

필요한 설비제작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더우기 《고난의 행군》에 이어 사회주의강행군을 하는 오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하여 정확히 자기궤도에 진입시킨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들은 위성보유국의 과학자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한계단 올려세우기 위하여 불타는 열정과 창조적지혜를 바쳐나가겠다.

과학원 원장 리 광 호

조선의 미싸일기술 대단히 높은 수준

북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는 북조선의 미싸일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9월 4일 로씨야우주협회 부총재 유리 밀로브가 이따르－따쓰기자와의 회견에서 언명하였다.

평양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위성은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82㎞, 제일 먼 거리 6,978.2㎞의 타원궤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주기는 165분 6초이다.

《인공지구위성을 그러한 단위의 궤도에 쏴올리자면 능력에 있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짝지지 않는 대단히 강력한 운반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밀로브는 간주하고있다.

부총재의 견해에 의하면 인공지구위성자체를 놓고볼 때 이것은 순수 우주과학기구이던가 혹은 《보다 더 복잡하지만 지구감시위성일수 있다.》

두번째 경우 이 기구는 큰 천체망원경을 장비하고있어야 한다.

그러나 밀로브의 말에 의하면 우주비행학의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첫 발사는 《아직 본질적인것이 아니다. 여기서 기본은 뜻밖에 나타나는 미싸일선물이다.》

부총재는 자기에게는 로씨야의 우주전문가들과 접촉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시도도 알려진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청받은것이 없다.》고 밀로브는 말하였다.

로씨야우주협회 부총재가 언명

《우주강국대렬에 들어선 대국》

세계적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관리할수 있는 나라는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몇개 나라뿐이다.

인공지구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된것은 1957년 10월 4일이였다. 당시 쏘련에서는 3계단운반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 《스쁘뜨니크1호》를 발사하였다. 그 수명은 3달이였다.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4계단운반로케트로 인공지구위성 《엑스플로러1》을 처음으로 쏴올렸다. 이에 앞서 미국은 여러번 위성을 발사하였으나 거듭 실패하였다. 미해군이 개발한 위성 《뱅가드》를 1957년부터 3년동안 11번 발사하였는데 겨우 3번 성공하였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일본도 5번의 실패끝에 《엘4에쓰5》운반로케트로 인공지구위성 《오오스미》를 쏴올렸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밑에 영국도 1969년부터 시작하여 네번째만인 1971년 10월에야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네번째 발사도 위성이 분리된 다음 20초 지나서 3계단이 위성을 따라가 충돌함으로써 위성안테나가 파손되여 결국 실패하였다.

이전 쏘련과 미국의 우주개발독점과 관련하여 1962년에 구라파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스웨리예,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모여 《구라파1호》운반로케트를 개발하는데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계단발동기는 영국이, 2계단발동기는 프랑스가, 3계단발동기는 당시의 서부독일이, 인공지구위성은 이딸리아, 유도장치는 벨지끄가, 원격송신장치는 화란이 맡아서 조립하여 1967년 8월에 오스트랄리아의 우메라발사장에서 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2계단발동기가 시동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그후 몇년동안에 10번이나 시험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1973년부터는 운반로케트개발을 단념하고 위성만을 만들어 운반로케트개발국에 의뢰하여 발

공화국의 위상을 떨친 50돐 경축행사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 창공높이 나붓기는 조국땅, 겨레들의 마음과 마음이 한결같이 달려와 하나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조국에서는 지난 9월 9일 창건절 5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끝없는 감격과 100% 자기의 지혜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첫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1호》를 우주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커다란 기쁨속에 공화국창건 50돐을 경축하게 된 조국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따라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투쟁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석탄지하가스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4.25려관과 9.9절거리, 해주—옹진, 신강령—부포사이 넓은철길공사완공 등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것으로 하여 조국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끝없는 자부와 긍지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50년력사에 또다시 빛나는 장을 새기게 되는 뜻깊은 9월 9일 경축의 날 조국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광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단상에 모시고 공화국창건 5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진행하였다.

력사의 광장은 위대한 태양조국, **김일성**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공화국의 기치따라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힘차게 나아갈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크나큰 민족적긍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병식 및 군중시위 주석단에 나오시자 례포가 발사되고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가운데 람홍색 공화국기와 최고사령관기가 게양되고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가자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근위부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열병행진이 있었다.

장엄한 열병행진에 이어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열화를 안은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만민이 그토록 매혹된 사랑과 열정의 미소를 만면에 지으시고 손을 높이 드시여 거

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발사에서 단번에 성공한것은 이러한 세계인공지구위성개발력사를 놓고 볼 때 하나의 기적이다. 하기에 지금 세계의 신문, 방송, 통신, 텔레비죤들은 이 경이적인 사변을 전하면서 조선을 《우주강국대렬에 들어선 대국》이라고 평하고 있는것이다.

듭 답례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온 우주를 받아안은듯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기쁨에 웃고 감격에 눈물지으며 꽃다발을 열광적으로 흔들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

감격적인 그 화폭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푸시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없이 충성다하는 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시대와 인류앞에 펼쳐보인 일심단결의 위대한 화폭이였다.

그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공화국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 군, 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또한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끝나는 차례로 홰불행진이 시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홰불행진을 보아주시였다.

홰불행진은 우리 당과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21세기를 위대한 력사의 새 시대, **김정일**시대로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엿보였다.

한편 이날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증정식이 진행되고 5만명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영광 빛나는 **김일성**조선》이 진행되였다.

충성의 편지증정식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이며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편지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에게 전달되였다.

그리고 집단체조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공화국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견인불발의 의지와 기백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조국땅우에 더욱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이날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공화국정부에서 베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연회가 있었다.

이에 앞서 각 지방과 중앙의 극장들에서는 인민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였고 공화국창건 50돐경축무대 《공화국은 녀성들의 참다운 삶의 품》과 《온 세상에 빛나는 로동계급의 나라》가 마련되었으며 웅변대회, 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결의모임들이 진행되였으며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와 전국예술사진전람회,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조선우표전람회가 개막되였었다.

한편 공화국창건 50돐경축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고 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여 공화국창건 50돐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공화국창건 50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모든 행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영광스러운 조국 공화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0돐경축 열병식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보무당당히 나아간다.



근위병들의 대오가 나아간다.

일심단결의 위력에 감탄하면서



멸적의 기세드높이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가는 열병종대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열병종대







무적의 기상을 떨치며 용용히 굽이치는 열병대오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종대



녀성군인종대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각계각층 근로자들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군중시위 진행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안고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공로자들



공화국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나아가는 시위군중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할 결의에 넘쳐있는 시위군중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의지를 보여주는 시위대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할 혁명적 신념과 락관에 넘쳐 나아가는 시위군중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의 구호를 들고 나아가는 시위대렬(우)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신념을 안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시위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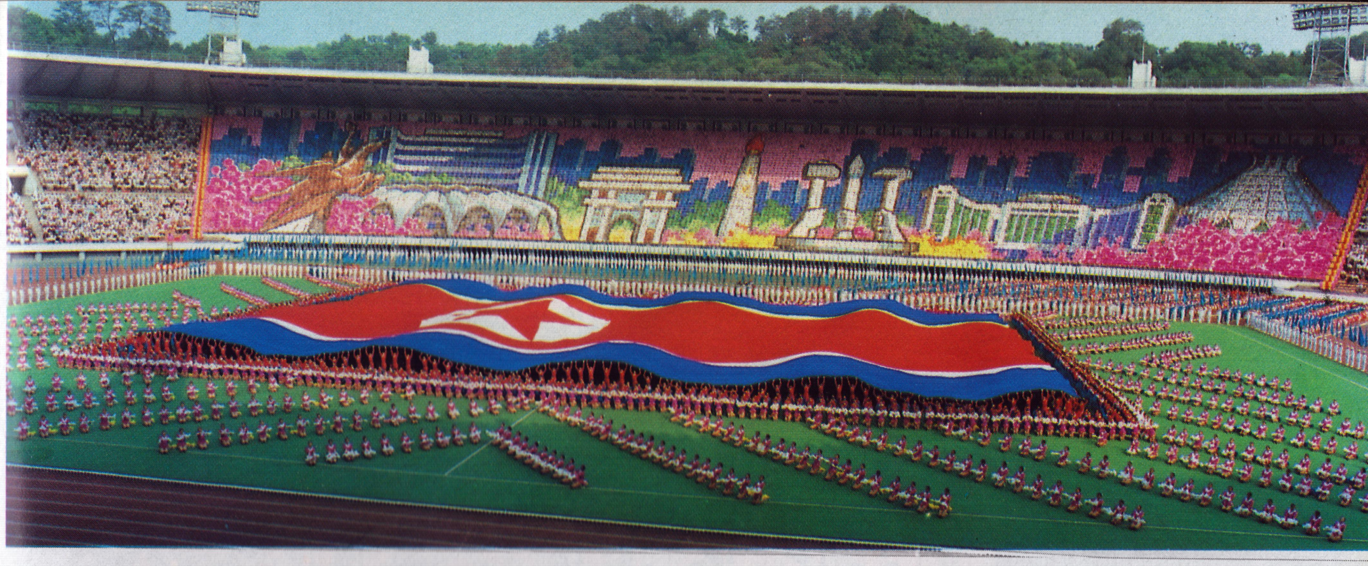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학의 성과로 담보할 일념을 안고 나아가는 시위대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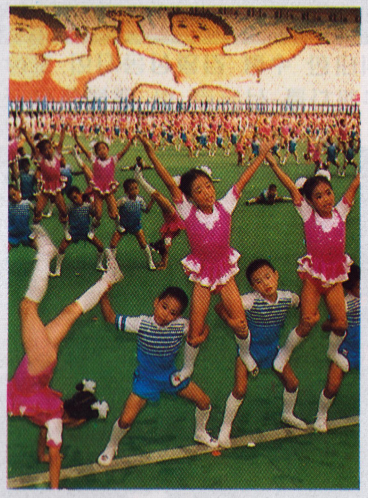
첫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의 발사성공을 보여주는 가장물대렬(우)과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글발과 21세기를 상징하는 구호를 멘 시위대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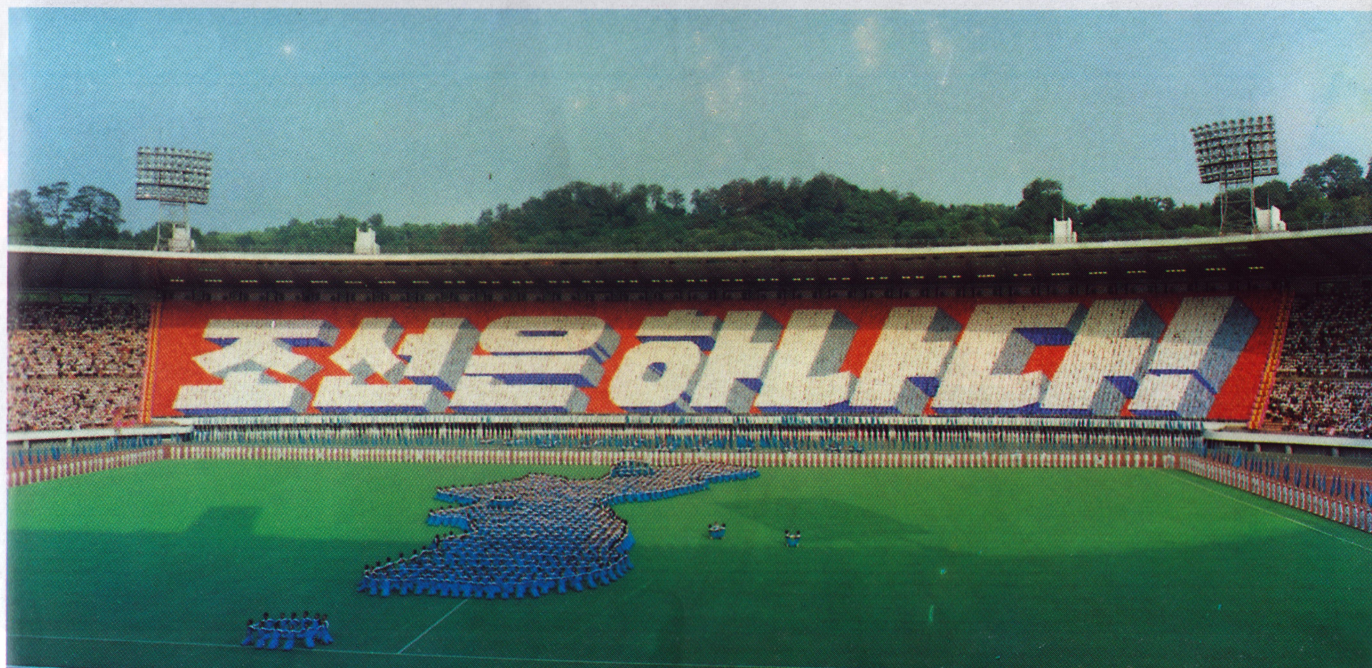


집단체조《영광 빛나는 김일성조선》진행





《조국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의 한 장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를 선두로 한 홰불행진 진행

공화국영웅들, 전쟁로병들, 혁명의 계승자인 새 세대 청년들의 대오가 굽이쳐흐른다.





《일심단결》의 글발을 새긴 홰불행진대오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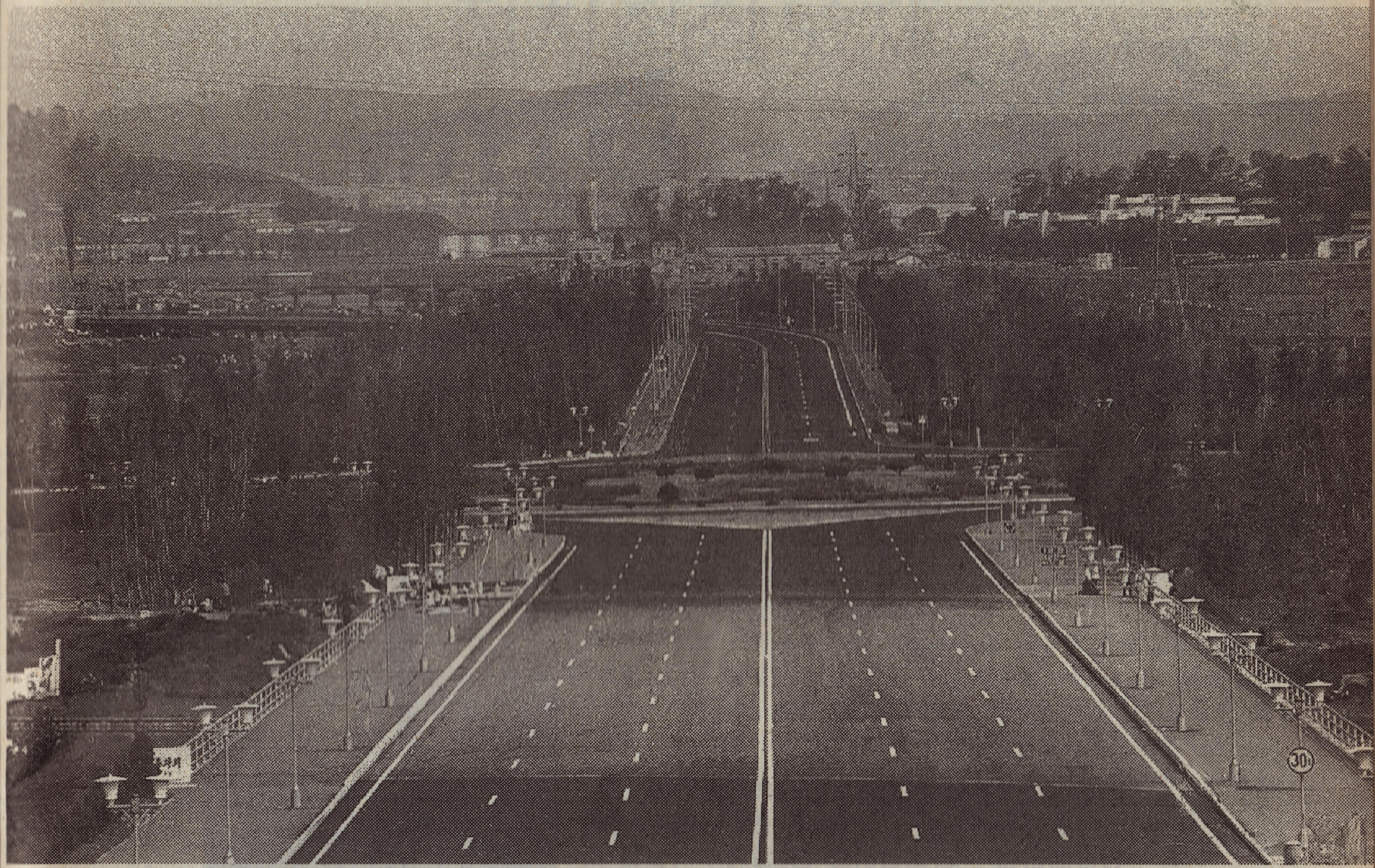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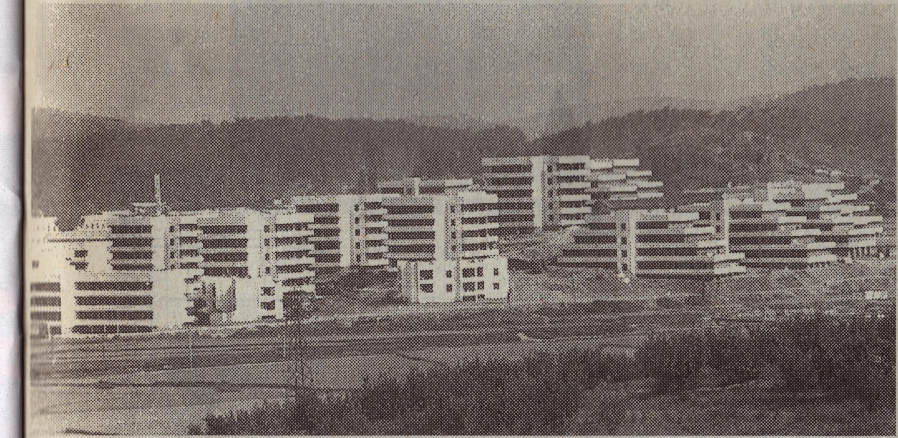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증정식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성대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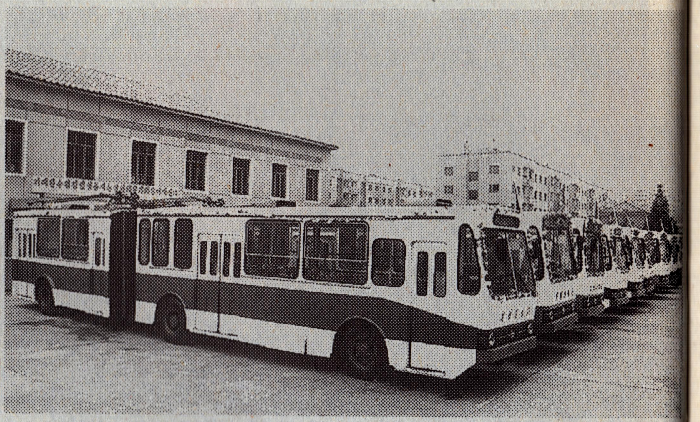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잇닿은 림흥로타리로부터 신미동에 이르는 20여리 구간에 특색있게 일떠선 9.9절거리—여기에는 1,300여메터의 9.9절다리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다리들과 2,0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있으며 도로주변에는 계절별 풍치림을 새롭게 조성하여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이 보다 숭엄하게 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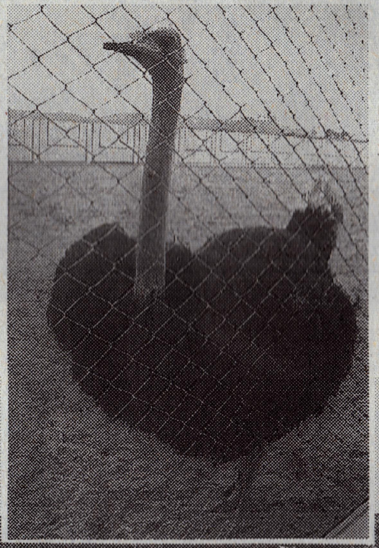
공화국창건50돐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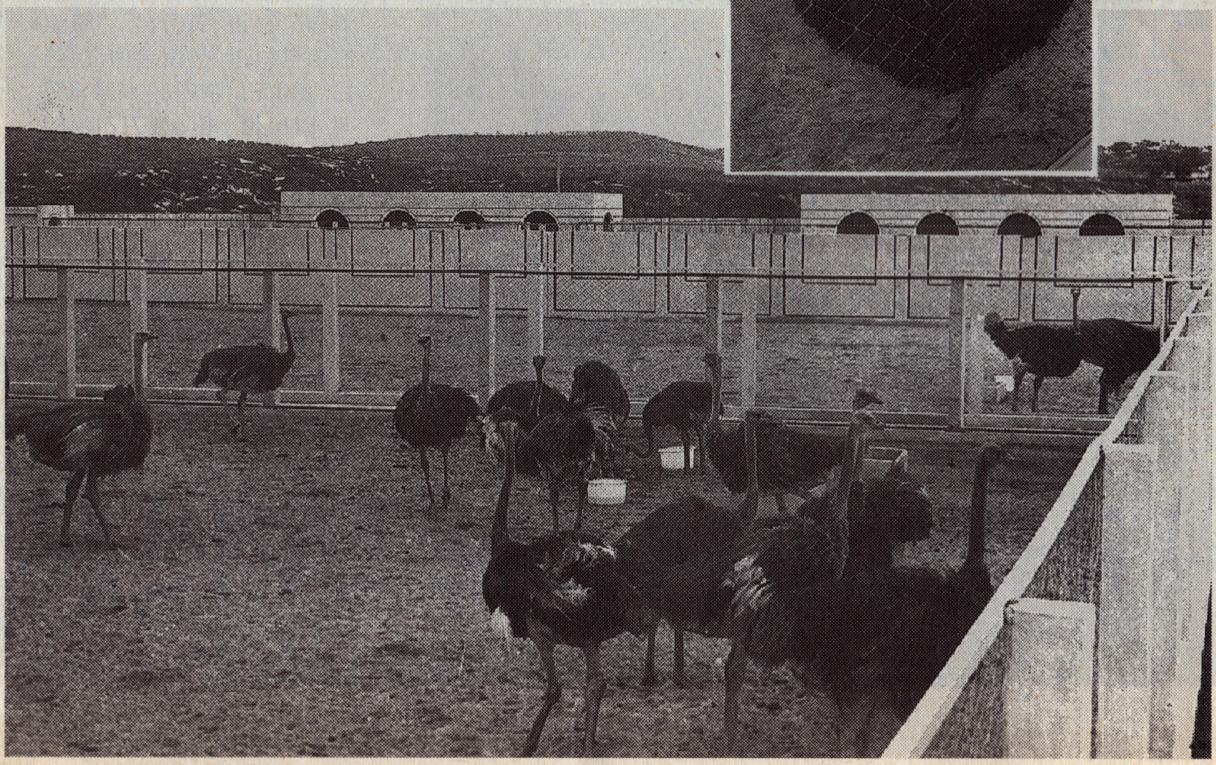


해주—옹진, 신강령—부포사이의 150여리의 넓은 철길이 개통됨으로써 옹진, 신강령지구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도모하고 철도수송능력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되였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마련한 《청년전위》호 특대형무궤도전차 증정



평양타조목장(연건평 2만평방메터)이 조업(920여평방메터의 타조우리와 1만 2,900평방메터의 타조놀이장 등 알깨우기실을 비롯한 20여개의 보조건물들이 있다.)



정치적향도자

올해 10월 10일은 우리 인민의 정치적향도자 조선로동당창건 53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사랑속에서 살아온 력사의 뜻깊은 나날들을 감회롭게 되새겨보군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믿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대중적정당으로서 우리 민족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지켜주며 행복한 새 생활창조에로 이끌어주는 정치적향도자이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붉은 기폭에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모습을 상징하여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긴 우리의 붉은 당기, 진정 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주인으로 세계앞에 내세워준 운명개척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을 위한 사랑, 인민을 위한 정치만을 펼쳐왔다.

하여 우리 인민은 10월을 생각할 때 우리 당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할 때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자랑찬 인생행로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민은 당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모르고 전진해왔고 당이 있었기에 흐르는 해와 달을 행복과 기쁨 속에 맞고 보낼수 있었다.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어 행복의 상상봉에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얼마나 값높은 삶을 빛내여왔던가.

그래서 우리 인민은 해마다 이날이 오면 어머니를 찾는 아기의 심정으로 당중앙을 우러르면서 행복과 기쁨에 넘쳐 마음속생각도 빠짐없이 터놓으며 당조직에 아뢰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값높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며 긍지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자주적인 참된 삶을 누리는것은 아니다. 진정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기지 못한 인민에게는 오늘의 영광도 래일의 행복도 있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만을 펼치는 진정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기에 무궁한 행복속에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전쟁의 불구름도 있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전후복구건설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봉쇄와 고립, 압살 책동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언제한번 주저한적이 없었고 앞날을 걱정한적도 없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품에 안겨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가슴속에 꽉 차있었기때문이였다.

어머니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강산을 적시고 가슴속에 피눈물이 가득찼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슬픔과 비애를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결연히 일떠섰던것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련되고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당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당건설과 당활동도 철저히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과 한피줄로 심장을 잇고 일심일체로 고난의 강행군길을 함께 헤쳐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를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고있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넘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불길속도 진펄길도 함께 헤치고 걸어온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갑 송

수기

마음의 기둥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운수직장
리 종 삼

남자는 40대에 들어서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요즘 류달리 생각이 깊어지군한다.

어떻게 살아왔던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수시로 이런 질문속에서 자신을 찾아보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전반생은 거의나 느끼고 체험하는 시기였다.

내가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살다가 사회주의조국에 귀국한것은 주체64(1975)년 18살때였다.

조국으로 떠나올 때 아버지의 심심한 당부가 있었기에 나는 애초부터 로동계급속에 생을 맡겼다.

로동계급속에서 단련되고 수양되고 의지를 키우고 생활을 가꾸게 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것인가를 요즘에 더욱 절감한다.

잊혀지지 않는 몇가지 사연이 있다.

그것은 내가 부주의로 팔을 상하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 병문안했고 작업반, 온 공장 성원들이 조국에 부모와 혈육이 없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며 보살펴주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비정의 사회, 돈만이 오직 인간의 정도 사고팔수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던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진정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것이였다.

내가 결혼할 때였다.

일가친척이 없이 조국에서 내가 결혼식을 맞게 되였다고 동무들과 공장의 일군들은 친형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조그마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도와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축복해주었다.

나는 점차 생활속에서 그 고상하고 정결한 인정세계속에는 언제나 인민들을 인도하는 당의 꾸밈없는 품격과 풍모, 령도의 위대함이 깃들어있음을 페부로 느꼈다.

조국인민들이 어찌하여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마음의 기둥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모든것을 바치고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그럴수록 나는 한생을 총련애국사업에 헌신해온 아버지가 왜 나를 조국에 떠밀어보내며 《조국에 가거라. 조국을 알고 조국의 정신을 배워야 참사람이 된다.》고 하신 말씀의 참뜻이 깊이깊이 새겨졌다.

천진한 아기를 포근히 안아주고 손잡아 걸음마 떼여주고 이끌어주며 어엿하게 키워주는 어머니, 어머니의 품은 참으로 따뜻하고 엄격한 사랑의 정화이다.

그 어머니의 품을 꼭 닮은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도 어엿한 이 나라의 아들로 성장했다.

나는 정치적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청년동맹비서, 직맹위원장의 중임도 맡아수행하였다.

나는 더욱 분발할것이다.

적은 힘이나마 충심으로 바쳐가려고 애쓰고있으며 나의 처도 이에 발맞추어 가족들로 조직된 작업반의 책임일군으로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나는 사는 보람을 느낀다. 벅차고 들끓는 현실,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들의 랑만적인 생활속에 내가 있고 나의 창조적 로동과 열정이 바쳐지고있다.

생각하면 사는 긍지가 저절로 부풀어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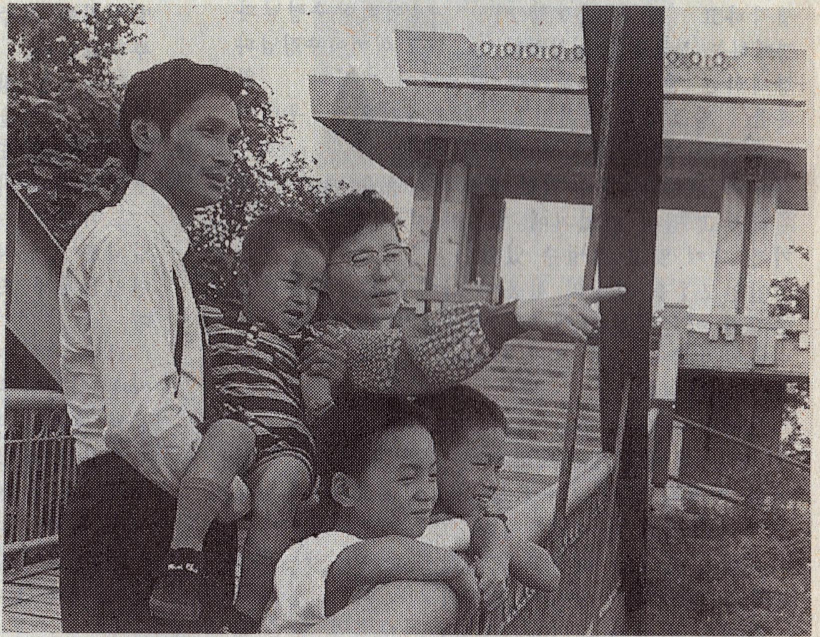
아버지의 권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그 일본땅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삶으로 분주히 뛰여다니며 고리타분하고 환멸적인 생활방식에 물젖어있었을것이다.

하기에 나는 여기로 나를 떠밀어준 아버지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며 나를 키워준 조국, 어머니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나의 후반생은 진정한 우리 조국과 조선로동당을 위하여 힘도 지혜도 열정도 량심도 깡그리 헌신하는 참다운 생으로 수놓아지리라는것을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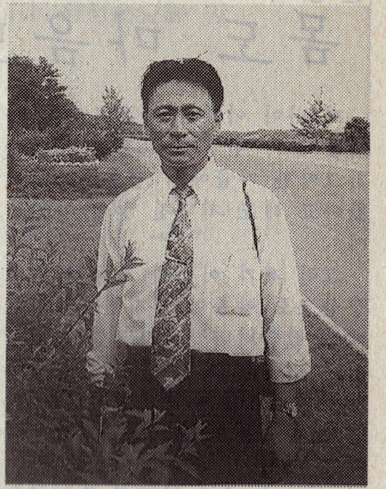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운수직장
리 종 삼

리종삼동무와 박류화녀성은 세 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였다.



인상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조국에 와서 보고 듣는것마다 새로운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것은 조국인민들이 하나같이 신심에 넘쳐있고 정열적으로 일하고있는 모습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은것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주목을 돌리게 된것은 조국인민들이 곤난을 겪고있는 때에 해외에서 돌아가는 랑설에 귀가 아팠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아니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 근심이 이번에 조국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저를 구석구석 눈여겨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고 찾아보아도 그따위 너절한 소리와 상통한것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올렸습니다.

조국땅 어디를 보나 벌은 벌마다에 오색기들이 펄럭이고 힘찬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들끓으며 모내기를 다그쳐 끝내가고있었습니다.

한해 농사에서 제일 힘든것이 모내기가 아닙니까. 그런 힘든 모내기를 온 나라 인민이 달라붙어 제철에 끝내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시울이 다 뜨끈해졌습니다.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 티를 보이지 않고 힘차게 일하는 모습이 가슴에 마쳐와서겠지요.

아마 이런 모습은 그 어디에 가도 볼수 없는, 우리 조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일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조국의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전이였으므로 노래와 춤바다가 펼쳐지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추대하고 선거에서 한사람같이 찬성투표하려는 기쁨과 결의의 노래였고 춤이였습니다. 저도 선거에 참가하여 장군님께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 심정이 되여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기력이 없으면 아무리 요구하고 강박해도 그렇게 웃으며 노래부르고 춤추지 못합니다.

조국인민들의 정신적기력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겠습니까.

장군님을 모신 인민,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이 아니고서는 이런 곤난을 웃음으로, 노래와 춤으로 헤쳐나가지 못할것입니다.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면서 조국인민들이 실지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강의한 의지로 뚫고나가고있다는것을 목격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인민들은 이 곤난을 누르고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 친지들과 동포들에게 조국의 벅찬 현실을 잘 알려주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신성자구
김 희 감

인상기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제 나이 이제는 일흔고개를 바라봅니다. 한생을 그저 부억과 자그마한 마을에서 맴돌며 늙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조국에 와서 명산으로 이름이 자자한 묘향산에 올랐습니다. 나지막한 둔덕길이나 넘어본 제가 수림이 울창하고 어찌보면 험준해보이기도 하는 묘향산을 처음 올려다볼 때에는 더럭 겁까지 났더랬습니다. 이 늙은게 저길 어떻게 올라가누 하고말입니다.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습니다. 우리같은 늙은이들도 쉽게 오를수 있도록 가파로운곳에도 길이 닦아져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묘향산등산길을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걸으시며 내주셨다니 저의 가슴은 뜨거움에 달아올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등산길인데 내 힘들다고 못올라가겠는가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뻗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묘향산은 오를수록 장관이고 절승이였습니다. 물이 어찌 맑은지 손목깊이나 될가하여 손을 잠그니 팔굽이 젖도록 바닥이 짚이지 않고 소리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산을 오르면 뢰성이 울듯 소리높이 수천길 낭떠러지를 기운차게 쏟아져내리는것이 묘향산의 물이였습니다. 물뿐만아니라 계곡과 바위들은 또 얼마나 묘하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또 얼마나 볼만하였겠습니까.

절승, 절승 해도 아마 이런 천하절승은 세상에 더는 있을상싶지 않습니다. 묘향산탐승은 저에게 있어서 행운이였습니다.

정말 내 조국이 제일입니다.

묘향산등산길을 멋들어지게 잘 꾸려놓았습니다. 근로하는 인민들이 이 훌륭한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니 참말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해외의 늙은이도 장군님의 은덕으로 말만 들어오던 조국의 명산 묘향산등산길을 올랐습니다.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젖고 조국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여 이 몸, 이 마음 다 젊어집니다. 그 젊음을 안고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과 통일성업에 저의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가겠습니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베아동

한원숙

이 마음 영원히 간직하고

첫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저의 가슴에는 한장의 사진이 정히 간수되여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성지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따슈껜트에서 나서자란 저는 조국의 출판물들이나 기록영화의 화면들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올 때면 한없이 인자하시고 위대하신 그 모습에 마음이 끌리여 언제면 만나뵈올가 하는 간절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 그곳의 방송들이나 주석님을 만나뵈온 외국인들속에서 우리 수령님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긍지가 넘치는것을 느끼군하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는 길로 붉은 꽃을 정히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그날 저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이께서 생존해계실 때 부르자던 만수축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영생축원의 노래를 안고 뒤늦게야 도착한 자신이 야속스러워서였습니다.

그이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을 때에도 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처럼 훌륭한 영생의 성지를 마련해주시여 저처럼 뒤늦게야 수령님의 령전을 찾은 불민한 자식들도 생전에 드리지 못한 효성의 인사를 드릴수 있게 하여주신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였습니다.

저는 첫 조국방문에서 간직한 이 소중한 심정을 잊지 않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따슈껜트시

김 미 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향망구 행복공사 신향방대대 정청순오빠 앞

우리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일해요

오빠, 세월이 물같이 빨리 흘러간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인가 하였더니 올해 12월에 어머니생일 여든돐을 맞게 되니 과연 세월이 빨리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세상에 아홉자식을 고스란히 키운 어머니도 쉽지 않겠지만 그 어머니가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정정한것이 또한 쉽지 않을거예요.

지금 동네에서는 어머니가 꼭 백돐상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하고있어요.

오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을 놓으세요.

어머니에게 근심되고 마음을 쓸 일이 있다면 머나먼 이국땅에 있는 맏오빠에 대한 생각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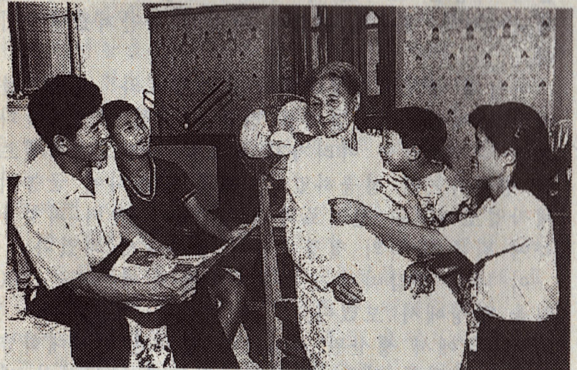
오빠, 어떻게 지내고있어요? 형님이랑 조카 명춘, 명철이 다 잘 있는가요.

조국에 있는 우리 8형제는 잘 지내고있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막냉이가 어머니를 모시고있는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저마다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집 은옥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장모는 자기가 잘 모시겠으니 걱정을 놓으라고 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오빠, 조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일을 잘 하고있어요.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둘째오빠를 비롯하여 우리 형제들은 나라에서 주는 큰 훈장을 받았어요.

얼마전 백두산밑에 자리잡고있는 대홍단에서 살고있는 큰언니한테서 소식이 왔는데 아저씨와 언니도 이번에 혁신자로 대홍단군에서 크게 소개되였다고 해요.

오빠, 조국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과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고생을 좀 하고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에 웃는자가 누구인가 보자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힘껏 일하고있어요.

우리 형제가 이국에 있는 오빠에게 부탁하고싶은것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있는 조국을 잊지말고 조국통일과 번영에 마음과 힘을 바쳐달라는 거예요.

참말 오빠는 이국에서 조국을 위해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돼요.

자라나는 민족의 새 세대들에게 우리 말을 배워주고 우리 글을 가르쳐주어도 이것이 애국애족의 발현이 아니겠어요.

오빠, 이해 마지막 12월 3일은 어머니의 생일 여든돐이 되는 날이예요.

형님이랑 조카들과 함께 평양에 오세요.

먼곳에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어머니는 늘 맏오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빠가 오면 오죽 기뻐하겠어요.

우리 8형제들은 집안의 귀빈으로 극진히 맞이할테니 꼭 오세요.

9형제가 모여앉게 되는 기회인데 얼마나 경사롭겠어요.

오빠와 형님, 조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래요.

안녕히.

평양시 평천구역 봉학동 5인민반

정 춘 옥

우리 군당책임비서

우리 나라에는 그 어데를 가나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조선로동당의 당일군들을 볼수 있다. 철산군당책임비서 오룡구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소박한 차림에 근면한 모습, 다정한 눈길에 부드러운 목소리, 그는 그 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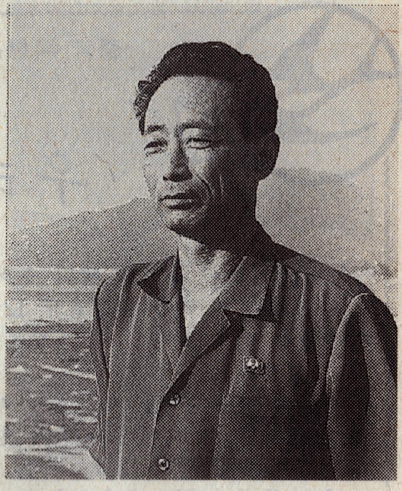
철산땅의 자랑

철산군은 평안북도 서해안지구 철산반도에 자리잡은 외진 군이다. 최근년간에 이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웃으며 걷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기는 군당책임비서 오룡구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주체84(1995)년 2월 어느날, 오룡구는 책임비서의 중임을 안고 철산군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먼저 군인민들의 생활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군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즉시 군내 건설부문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책임비서는 일군들에게 부임인사를 협의회로 대신하자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군당위원회는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를 생산할 결심을 하였는데 군에는 세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이 없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석회석을 대신할수 있는 원료를 찾아내야 한다. 협의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협의회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였으나 끝내 답을 찾지 못하였다. 책임비서는 협의회를 휴회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철산군당책임비서 오룡구

《석회석의 대용원료를 찾는 문제는 단순히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일군들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며칠이 흘렀다. 일군들이 다시 모여앉아 그동안 각기 자기들이 대용원료를 찾아본 정형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런데 토론내용을 종합해놓고 보면 철산군에는 대용원료가 없다는것이다.

이때 책임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였다.

《대용원료가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회석에 들어있는 주요성분이 조개껍질속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조개껍질은 우리 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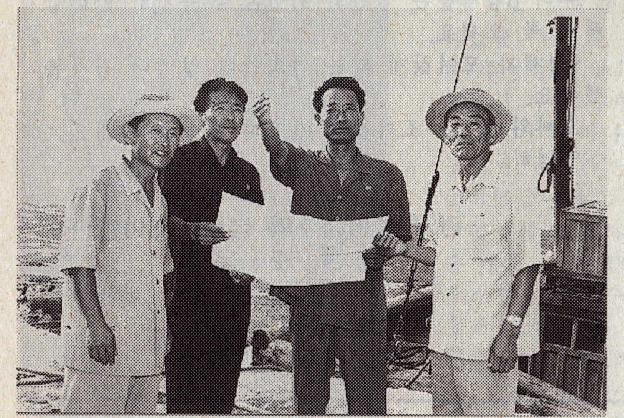
책임비서는 자기의 말을 론증이라도 하듯 해당한 기술자료들을 내놓았다. 기술자료를 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자료의 글줄마다에 바쳐진 책임비서의 깨끗한 량심과 지성이 안겨왔던것이다.

마침내 군도시건설대에서는 소성로와 분쇄기를 비롯한 세멘트생산설비를 만들고 흔한 조개껍질과 군에 널려져있는 여러가지 원료를 가지고 세멘트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전기로와 압연기를 만들어 파철을 녹여 각종 규격의 철강재까지 뽑아내게 되였다.

이 나날 책임비서는 로동자들과 함께 옹근 100일을 현장에서 보냈다.

철산군에서 생산된 세멘트는 얼마전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된 전국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세멘트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오룡구책임비서는 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하나를 하면서 열을

끝없는 사색과 연구, 대담한 작전과 지휘는 책임비서 오룡구의 사업에서 핵을 이룬다.

세멘트공장 건설이 한창일 때 그는 살림집건설문제, 바다리용문제, 저수지와 수로 건설문제, 도로확장문제 등 10여가지의 중요대상들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줄기차게 내밀었다.

그중에서도 놓치지 않고 중시한것은 바다리용문제였다.

조개는 철산군의 특산으로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마침내 그는 수산과학자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대담하게 철산앞바다에 조개양식장을 꾸릴것을 결심하였다.

이때 일부 일군들은 조개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바다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므로 울타리없는 망망한 바다에서 양식하기는 곤난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책임비서는 자신있는 어조로 일단 뿌려진 새끼조개들은 물이 깨끗하고 부유생물이 풍부한 철산앞바다를 절대로 뜨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윽하여 조개양식장 설계도면이 완성되였다.

작성된 도면에는 양식면적 7정보에 새끼조개 5톤을 뿌릴것을 계획하고있었다.

이때 책임비서는 일군들이 왜 이렇게 통이 작은가고 하면서 양식장면적과 새끼조개량을 각각 100배이상으로 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군들이 놀라와하자 그는 인민을 위한 일인데 힘이 좀 들면 뭐라는가, 인민을 위한 타산은 클수록 좋다고 하였다.

드디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700여정보의 조개양식장에 500여톤의 새끼조개가 뿌려졌다. 봄에 콩알만하던 새끼조개가 어느덧 가을에 가서는 먹음직스럽게 크게 자라났다.

작년만 하여도 군에서는 수천톤의 조개를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으로 철산앞바다는 보배바다로 되였다.

책임비서의 통이 큰 작전과 면밀한 지휘는 뜨거운 인정미로 하여 더욱더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한해전 비오는 여름 어느날이였다.

이날 군내 지도일군들은 각기 바다가농장벌에 나가 큰물피해를 입을수 있는 포전들을 사전에 료해장악하고 해당 대책을 세우도록 되여있었다.

여기에 망라된 책임비서는 주로 포전사이에 흐르는 개울의 뚝을 살피면서 보수정비하고있었다.

그러던중 갑자기 어린 학생들의 인사말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개울 맞은편에서 나어린 학생들이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며 개울을 건느려고 하였다.

《애들아, 위험하다. 가만있거라.》 이렇게 당부한 책임비서는 즉시 개울을 건너가 학생들에게 등을 돌려댔다. 그러자 학생들은 굳이 사양하였다.

책임비서는 학생들에게 올가을에는 이곳에 꼭 큼직한 세멘트다리를 놓게 된다고 하면서 한명씩 때로는 두명씩 겹쳐 업어 건늬였다.

웃음속에 기쁨속에 학생들은 노래를 서작하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책임비서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학생을 업고 개울을 건늘 때였다.

책임비서는 그 학생에게도 나이는 몇살인가, 공부는 잘하는가, 집은 어느곳인가고 일일이 물어보았다.

이 과정에 학생의 할아버지가 전쟁로병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날 포전을 다 돌아본 책임비서는 그 학생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는 전쟁로병을 만나보고 그의 사소한 신병까지 헤아렸다.



로동자가정을 찾은 책임비서

책임비서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려 군내에 있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그리고 제대군관들의 건강실태를 재삼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며칠후 학생의 할아버지—전쟁로병은 나라의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료양치료까지 받게 되였다.

오늘 철산군인민들은 군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책임비서 오룡구를 두고 《우리 군당책임비서》라고 즐겨 부르며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윤 홍 엽

문답

고국땅을 밟아보고서

지난 7월 까자흐스딴 침켄트시에서 살고있는 해외교포 안 올레그 보리쏘위치와 한 울라지미르 예쑤노위치는 선조의 나라, 고국을 방문하고 본사기자와 소감을 나누었다.

기자 :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감상들이 어떻습니까?

안 올레그 : 무척 와보고싶었던 고국입니다. 이곳에 와보았다는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많은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고국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주요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명승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첫 인상에 강렬히 느껴지는것은 고국에는 인민의 력사가 보존되여있고 민족의 문화가 살아있다는 감상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 서해갑문, 주체사상탑, 단군릉,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많은 건축물들은 고국인민들이 신비한 건축재간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습니다.

까자흐스딴 침켄트시 첼독산거리－70 한 울라지미르 예쑤노위치



전쟁의 페허를 가시고 이토록 훌륭히 건설해놓은것을 보니 인민들의 슬기와 힘이 참으로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국에는 산천경개 또한 볼만합니다. 이미 고국의 절승경치에 대한 소문은 자주 들어왔지만 이번에 금강산에 올라보니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가진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나라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안겨들었습니다.

한 울라지미르 : 정말 고국은 땅은 비록 작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온 그대로입니다. 경치도 좋지만 인민들의 정신세계가 매우 고상하고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충격적으로 느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고국인민들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존경심이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로 굳게 뭉치여 령도자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움직이고있었습니다.

인민들의 그 고상한 정신세계는 구체적인 생활에서 정직하고 순결하며 질서정연한 풍모를 발현하고있습니다.

단 실례로 우리 두 사람은 호텔옆에 있는 상점에 가서 상품을 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 처녀가 호텔에 와서 우리를 찾고있다는것입니다. 그 처녀판매원은 우리를 보자 몹시도 반가와하며 어제 거스름돈을 잘못받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참 미안하게 되였다고 사과하고는 돈을 더 주는것이였습니다. 이런 고상한 도덕과 미풍은 서방세계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까자흐스딴 침켄트시 조선인문화쎈터 안 올레그 보리쏘위치

기자 : 까자흐스딴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안 올레그 : 저는 까자흐스딴 침켄트시 조선인문화쎈터 회장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우리 문화쎈터는 민족의 전통, 민족문화, 민족풍습, 민족어를 되살리며 민족의 권익을 옹호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잘살도록 하는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여러 민족간의 친선도 도모하고있습니다.

한 울라지미르 : 문화쎈터의 사업은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의 넋을 되살리고 굳세게 이어주는데서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는 고국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싶은 심정을 이 문화쎈터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고국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함흥이 부모들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고국에는 일가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국이 어려울 때 피를 나눈 동포로서 수수방관할수 없었습니다. 저의 심정을 리해하고 우리 아들 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위치가 도와주어 고국에 얼마간의 자금을 기증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녀성들은 반찬감을 아끼고 처녀들은 혼수감을 바쳐서라도 국채를 보상하는 운동도 벌려왔고 나라를 위해 한몸을 그대로 희생하는 애국적풍습이 대대로 이어져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 고국을 위해 우리 해외동포들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귀중한 마음을 안고오셨습니다. 애국심은 언제나 인민이 알고 력사가 알게 될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지상과제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습니다.

안 올레그 : 조국의 강토가 허리가 동강난채 수십년이 흘렀다는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아픕니다.

해외에서 사노라면 북인가 남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선은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닌 유일한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통일되여있는 하나의 조선은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 와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원칙들과 방안들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였는데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홍콩이 귀속되였으나 서로 자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실례가 그 통일의 중요한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한 울라지미르 : 통일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바지해야겠는지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꼭 통일을 위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자주 만나게 되리라는것을 기대합니다.

조국이 다 아는 영웅의 가정



영웅의 가정을 찾은 탄광일군들

90년대의 첫 공화국영웅 김광철,

그의 영웅적위훈은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뿐아니라 인민들모두가 따라배우는 모범으로, 전형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주체79(1990)년 1월 군사훈련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위기일발의 순간이 조성되였을 때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터지려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대원들을 구원하고 숭고한 최후를 마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그가 위기일발의 순간 서슴없이 자기의 청춘을 바칠수 있었겠는가.

그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구장군 룡문로동자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소박한 내외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알고보니 김광철영웅의 아버지 김명룡은 룡문탄광에서 로동안전과 지도원으로, 어머니 신송옥은 탄광도서실에서 출판물보급원으로 일하고있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김명룡의 고향은 구장군 수구리이다.

거기에서 해방전 그는 제땅 한뙈기도 못가진 설음이 가득찬 가정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그날 집안에 서리였던 설음은 말끔히 가셔졌다.

그날부터 명룡의 아버지 김두병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자기 가정에 땅을 주시고 자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였다.

어릴 때부터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겨온 김명룡은 남먼저 조국보위초소에도 섰고 어렵고 힘든 부문인 탄광에서 석탄증산으로 조국을 받들었다.

룡문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채탄작업반장으로 일할 때 그는 어느 하루, 어느 분기, 어느 해에도 계

획을 미달한적이 없었다.

이나날 그는 일잘하고 마음씨 고운 신송옥과 가정을 이루었다. 주체54(1965)년에는 맏이인 광철이가 태여났다. 그들부부는 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철이가 13살되던 해였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던 명룡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광철이가 동생들과 함께 울바자결에 당콩대를 세우고있었다.

광철이가 탄광일에 바쁜 부모들의 일손을 돕느라고 동생들과 함께 산에 올라 마련한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기특한 일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을 눈먼 사랑으로 키우려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밤을 지새우며 일해도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면 피곤을 모른다. 학생의 첫째가는 본분은 학습을 잘하는거다. 어려서부터 제 집안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하면 못쓴다. 시간을 아껴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힘써야 한다.》

광철이네 네남매가 언제나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게 된데는 이렇듯 엄격하고 대바른 부모의 진정이 깃들어있었다.

광철이가 11살나던 해였다.

어느날 아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던 명룡은 걸음을 멈추었다.

길가에 흘려진 석탄이 있었던것이다. 쓸어모으면 몇줌이 될가말가 하는 량이였다. 명룡은 석탄을 그러모으며 아들에게 일렀다.

《어서 집에 가서 바께쯔를 가져오너라.》

아들과 함께 깨끗이 쓸어모은 석탄을 저탄장으로 가져가며 명룡은 말했다.

《이 석탄을 적은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돼. 이 석탄 한줌에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우리 탄부들의 마음이 깃들어있거든.》

그 일이 있은후부터 광철이는 한줌의 석탄뿐아니라 조국의 재부라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다 보물처럼 여기며 무척 아끼였다.

탄광마을 사람들은 김광철영웅이 발휘한 영웅적소행에는 부모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을의 로인들은 명룡의 가정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대끝에서 대가 나오기마련이지.》

주체70(1981)년 여름 고등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광철이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되였을 때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은 광철이의 모습은 부모들을 기쁘게 했다.



영웅의 부모들은 아들의 모교를 자주 찾는다.

명룡은 아들에게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조국을 지키는길에 나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혁명선대들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네가 리수복영웅처럼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웅심깊은 말에 광철이는 《조국이 통일되는 날 금빛훈장을 달고 집으로 들어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광철은 이날 부모님들과 한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금빛훈장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라에서는 그의 고결한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다니던 학교를 《김광철고등중학교》로 부르도록 해주었고 영웅의 반신상도 세워주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광철이의 부모라고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고 예전과 다름이 없이 조국에 성실한 땀과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김광철영웅의 뜻을 이어 오늘은 그의 동생 윤철이가 《김광철영웅중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고있으며 누이동생들인 희숙이, 금숙이는 군관들에게 시집을 가 모두가 조국을 보위하는 길에 떨쳐나섰다.

지난 5월 22일 조국의 최전연에 있는 김광철영웅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철이의 동생 김윤철을 친히 만나주시였으며 자식들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그의 부모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가정에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오늘도 영웅의 부모는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숭고한 애국심을 바쳐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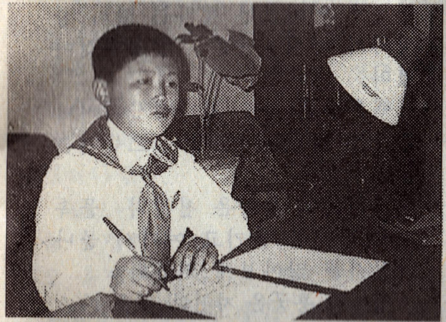
기특한 학생

내 나라, 내 조국의 훌륭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속에는 남달리 애국충정의 마음을 간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년들이 수많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리금성학생도 바로 이런 어린이들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6월 어느날이였다.

풍치수려하고 산세험한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



신의주외국어학원 리금성학생

는 룡악산의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무성한 숲속을 헤치는 한 소년이 있었다.

한걸음 옮기고는 풀잎들을 유심히 살피고 또 한걸음 옮기고는 취나물잎을 그린 종이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소년, 그가 바로 신의주외국어학원에 다니는 12살나는 리금성학생이였다.

피곤에 몰린듯 충혈된 두눈, 터갈라진 입술…

그는 벌써 며칠째 이 숲속을 뒤지며 취(산나물의 일종)를 찾고있는것이다.

정말 룡악산에는 취가 없단말인가?

그가 룡악산에서 취를 찾게 된 사연인즉은 이러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서깊은 룡악산에 오시여 전에는 이곳에 취가 많았는데 지금은 종자마저 없어졌다고 하셨다는 뜻깊은 사연을 그는 한 인민군부대 정치일군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정치일군은 당시 신의주시 백사인민학교 소년단위원장으로서 《우리 학교 - 우리 초소》운동에 앞장서고 여러가지 장한 일을 하여 《김일성소년영예상》까지 수여받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룡악산에 가면 꼭 취를 찾아보라고 당부하였던것이다.

이때로부터 리금성학생은 오직 하나 룡악산에 취밭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는 결심을 굳히였다.

이 나날에 그는 취는 30여종이나 되며 곰취와 참취가 쌈을 싸먹을수 있다는것, 그중에서 곰취가 특별히 잎이 크고 둥글며 기름기가 돌고 맛이 좋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후 그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 입소한 기회에 아침저녁으로 룡악산의 깊고 험한 골짜기들을 샅샅이 훑었으나 끝내 곰취는 찾을수가 없었다.

야영의 나날 그가 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어제밤 나는 꿈에서 곰취를 보았다. 그런데 낮에는 왜 보이지 않는가. 취야 취야,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주렴.》

야영소에서 돌아온 그는 신의주지구는 물론 멀리 피현군과 의주군의 높낮은 산발들을 톺으며 취를 찾고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감동되여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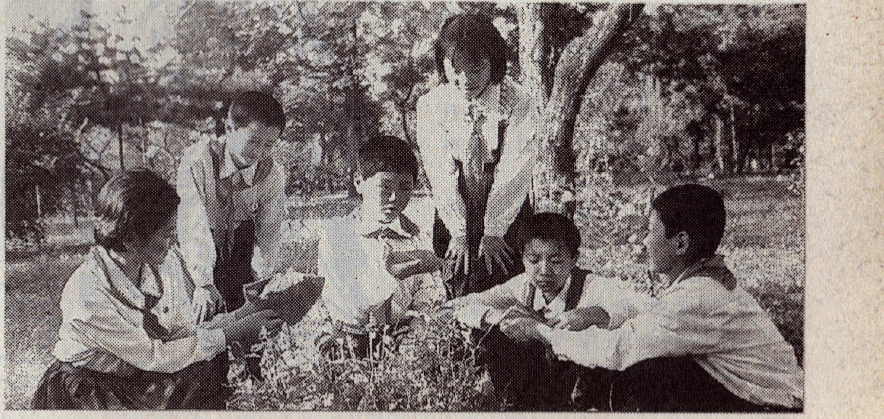
도와 시의 일군들, 교원들과 학생들, 군인들이 그를 도와나섰다.

마침내 리금성학생은 신의주시에서 200리나 되는 천마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렇게 안타까이 찾던 곰취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여 오늘 룡악산에는 금성학생이 떠다옮긴 318포기의 곰취밭이 생겨나게 되였다.

지난 5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악산에 곰취밭을 꾸려놓고 앞으로 룡악산뿐아니라 온 나라에 곰취가 뒤덮이게 하겠다는 어린 금성이의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특합니다. 1998. 5. 20 김정일》**이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꽃송이를 키워가며



야화

룡궁을 옮기다

한번은 동해의 제일 깊은 물속에 산호로 가지가지 장식을 한 룡궁에서 룡왕이 보배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세상만물이 다 비치는 보경에 그날저녁에는 백두산 천지에서 머리를 감는 선녀들의 모습이 비치였다.

《허, 내가 옥황상제의 초청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았던 선녀들이 곱긴 했어도 저 큰 못에서 머리빗는 선녀들만큼 황홀하진 못했노라. 세상에 저렇게 눈부신 선녀들도 있었던고?》

그러자 물을 다스리는 수관이 달려나와 아뢰였다.

《저 못은 조종의 산으로 일컫는 천상천하의 제일명산인 백두산마루에 있는 천지라고 부르는 못이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날마다 내려와 천지의 맑은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덕에 저렇게 어여뻐졌나이다. 그런데다가 천지는 매우 신령스러워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티끌같은 잡념도 말끔히 가셔지고 본래보다 몇갑절 더 마음이 아름다와지는 까닭에 저 선녀들도 룡왕님이 보시는바와 같이 저렇듯 황홀해지게 되였소이다.》

《그런것을 우리는 어째서 여지껏 모르고있었는고?》

《황송하오이다. 하늘나라와 땅나라들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였으나 우리 룡궁은 바다의 깊디깊은 물속에 생겨난지 얼마 안된 탓으로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있었나이다.》

하늘나라에는 해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면서 세월을 주관하는 일관이라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룡궁에는 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무엇이나 다 알아맞추는 수관이 있었는데 그가 그런 대신이였다.

이 수관의 설명을 듣고보니 룡왕은 슬그머니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백두산은 하늘을 밀어올렸을뿐아니라 땅도 받들어올렸는데 땅세상에는 륙지와 함께 바다도 있거늘 어찌하여 그 신령스러운 명산을 선녀들만 즐기는곳으로 내맡겨두겠는가. 자기들 물나라에서도 응당 거기에 가서 즐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룡왕은 수정종을 울려 신하들이 다 모이게 하고 자기가 생각한바를 말하였다. 룡왕이 주관하는 모임에서는 물나라에서 백두산천지까지 어떻게 갈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론의되였다.

선녀들은 무지개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지만 자기들은 물밑에서 높은 산정에 있는곳까지 무슨 수로 갈수 있겠는지 실로 묘연하기만 했다.

여러날만에 수관이 묘한 생각을 내놓았다.

백두산은 솟아나면서 주변의 땅도 두드러져오르게 하였고 그 힘에 의하여 뿌려진 큰 땅덩어리가 섬으로 된 제주도의 한나산에도 백록담이 있는것으로 보아 백두산천지로부터 동해의 바다밑을 거쳐 백록담까지 뻗은 물길이 있을것이 분명하니 그것을 찾아내여 그 물길을 따라 들어가자는것이였다.

물나라의 신하들인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룡왕의 령을 받들고 모두 떨쳐나서 애쓴 결과 얼마후에는 백두산천지와 통하는 물길을 끝내 찾아냈다.

룡왕은 너무 기뻐 큰 연회를 베풀고 그날로 백두산천지속으로 들어갔다.

정작 와보니 룡궁에 앉아서 보경으로 비쳐보던 때와는 달리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황홀한것이였다.

백두산은 산도 제일명산이거니와 천지의 물속 또한 으뜸가는 절경이였다.

그리하여 룡왕은 천지의 물속으로 궁전을 옮기고 여기서 물나라정사를 맡아보게 되였다.

천지의 룡궁은 자연히 물을 다스리는 기본궁전으로 되였으며 이때부터 천지는 《룡왕당》 즉 룡왕이 사는 못이라는 딴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자랑스러운 다섯해

10월 30일은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창립된 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뜻깊게 맞는 협회의 모든 공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일찌기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여 나서 자란 정든 고향산천을 하직하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흘러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던 동포들이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으로서 자기 조직을 뭇고 떳떳이 살아가고있다.

지난 기간 협회의 공민들은 해외에서 사는 어려움속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동포들의 권익과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지만 나라를 찾아주시고 강위력한 사회주의조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안고 온갖 곤난속에서도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갔다.

넓으나 넓은 지역의 여기저기에 널려사는 공민들이 협회에 하나로 굳게 결속되여 유구한 민족성도 옳게 이어나가고 조국의 들끓는 현실도 바로 알면서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활기롭게 벌려나갔다.

애국은 실천에 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협회 공민들이기에 조국인민들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들은 적게 쓰고 적게 먹으면서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으나마 이바지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왔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데서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는것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협회의 공민들은 지난 기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하여왔다.

3년전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하는 서명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동포들이 여기에 서명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협회는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활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담화와 성명 등을 발표함으로써 싸우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참으로 시련많은 언덕을 넘어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걸어온 다섯해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충성의 나날이였으며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힘있게 전진해온 자랑스러운 나날이였다.

앞으로도 협회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를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든 동포들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고 로씨야인민들과의 친선을 도모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조 선 속 담

―겨울이 (다)되여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 되여 다른 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죄다 떨어진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소리개도 오래면 꿩을 잡는다.

재주가 적은 사람도 한가지 일에서 오래 경험을 쌓아가면 능수가 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호박은 떡잎부터 좋아야 된다.

모든 일은 시작할 때부터 잘하여야 함을 비겨이르는 말.

―안본 룡은 그려도 본 범은 못 그린다.

①무슨 일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지로 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②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비겨이르는 말.

겨레의 힘찬 통일웨침

7천만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국광복 53돐이 되는 지난 8월 15일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오전 9시 대축전의 개막을 알리는 류랑한 나팔소리가 판문점의 하늘가에 울려퍼지자 해내외의 대축전 대표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판문각 앞마당으로 물결쳐왔다.

대축전에는 북과 남, 해외 68개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높은 각계인사들을 포함하여 총 2,000여명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대축전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준비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개막사에서 7천만 겨레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4월남북련석회의(1948년)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모여 력사적인 8.15통일대축전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동포애의 뜨거운 정이 넘쳐나고 통일의 열기가 세차게 굽이치는 이 통일대축전이야말로 진정 민족의 대단결이고 조국의 통일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통일대축전준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이번 축전에 참가한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대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대축전의 개막이 선언되자 고구려 녀무사복장을 한 녀성취주악대의 《민족통일대축전가》주악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조선민족옷을 입은 녀성들이 대축전기발을 들고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으며 대축전장에 입장하였다.

이어 노래 《통일아 통일아》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축전기발이 서서히 게양되고 평화의 상징인 수백마리의 비둘기들이 판문점 하늘가로 날아올랐다.

이날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는 동포단합대회와 98범민족회의, 제3차 범청학련총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내외동포청년학생 제3차 련석회의가 진행된데 이어 8.15통일대축전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와 함께 민족통일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북과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분렬의 아픔을 가시며 통일방도를 의논하고 통일노래도 함께 부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지를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대축전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커다란 긍지와 기쁨이 넘쳐있었다.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통일의 궤도를 따라 걸어갈 신념과 의지만은 확고부동하기에 해내외대표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영원히 변함없을 자기들의 결의들을 열렬히 피력하였다.

성황리에 개막된 대축전은 소정된 일정을 마치고 이날 페막되였다.

페막사는《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이며《민화협》회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페막사에서 거족적인 회합을 성공시키는데 이바지한 북과 남, 해외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다음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온 겨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가 민족공동의 위업,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뜻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해나간다면 그것이 곧 민족의 단결이고 조국통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축전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족적통일운동의 앞장에 서서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대축전의 페막을 선언하였다.

이어 《민족대단결가》주악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기발이 서서히 내리워졌다.

정녕 건듯 불어예는 한점의 바람소리에도 날카로운 총창들이 번득이던 력사의 땅 판문점, 그 하늘가를 진감하며 울려퍼진 조국통일의 힘찬 구호소리와 노래소리, 끝없이 날아예는 수백마리 비둘기의 자유로운 퍼덕임은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분렬의 력사,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함으로써 21세기를 부강조국건설의 새 세기로 맞이하려는 7천만 우리 겨레의 힘찬 통일웨침이였으며 거세찬 력사적출정의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리 갑 송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이 판문점에서 성대히 개막된데 이어 동포단합대회가 있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판문점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





노래도 하나, 춤도 하나, 소원도 하나
－민족통일예술축전이 판문점
통일각앞에서 성황리에 진행－





범청학련통일노래무대의 한장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언제나 앞장에 선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김대원, 황선 대표들도 행진에 뛰여들었다.

8.15통일대축전 북과 남, 해외동포 대표들이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행진하였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관철 8.15통일대축전 북측대표들의 결의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

8.15통일대축전 사진전시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내외 동포청년학생 제3차 련석회의





제3차 범청학련총회





